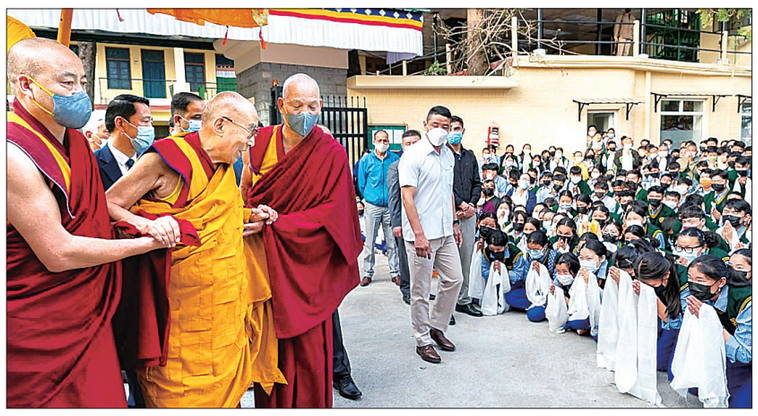
달라이라마, 2년 만에 법문…수행정진 격려

3월18일, 다람살라 남걀사원
티베트력 정월대보름 맞아서
'본생담' 법문…보살계 수계
건강 이상설 대한 논란 일축

박영빈 객원기자


법문을 위해 관저에서 나오며 인사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2년 만에 공개 대중법문을 가졌다. 달라이라마는 3월 18일, 티베트력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다람살라 남걀사원에서 대중에게 〈본생담〉 내용을 법문하고 보살계를 수계했다. 달라이라마의 오래간만의 외출에 '더 티베트 넷',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등 외신이 이를 보도했다.

티베트력으로 정월 대보름은 티베트에서 '신변절(神變節)'이라고 불린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날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신통을 보이며 육사외도를 조복하신 날로 기념된다. 때문에 티베트에서는 이날을 기념해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본생담〉을 들으면서 부처님께서 수행정진하신 공덕을 기억한다.

지난 18일,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에서는 사부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달라이라마를 법사로 〈본생담〉 가운데 '베산타라 자타카'의 이야기를 청해 듣고 보살계 수계를 봉행했다. 달라이라마는 지난 2020년 1월, 성도성지인 부다가야에서 대중법회를 가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람살라의 관저에 칩거해왔다. 이날 대중법문은 약 2년 만의 일이었다.

이날 오전 관저를 나온 달라이라마는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남걀사원에 마련된 법상에 올랐다. 달라이라마는 두 손을 주먹 쥐고 앞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래라면 오늘 델리에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 여러분이 보다시피 나는 매우 건강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달라이라마는 "이전에는 매년 겨울 부다가야를 방문하고 델리를 들러 검진을 받았으나, 지금은 매우 건강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꿈붐(달라이라마의 고향마을)에서 온 이 노승은 매우 건강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건강 이상설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달라이라마는 "부처님께서는 결코 중생의 업을 직접 손으로 덜어내거나 물로 씻겨 주실 수 없다. 또 당신께서 배우시고 깨달으신 바를 우리의 손에 쥐여 주실 수도 없다"면서 "다만 그 아시는 바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것을 받은 우리 중생들이 직접 듣고 사유하여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스스로 나아갈 가야 함을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우리에게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 이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몸에 승복을 걸치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형식이 아닌 어떤 옷을 걸치고 있든, 법을 배우고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지런히 문사수를 닦을 것을 당부했다.

달라이라마는 '베산타라 자타카'를 간략히 소개하며 신년에 〈본생담〉을 읽는 건 부처님의 생애와 공덕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보살계를 수계하고 다시금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달라이라마는 "요즘 무릎이 아파서 거동이 조금 불편하다. 어쩌면 나중에 지팡이를 짚고 이 자리에 나올지도 모른다. 그래도 말을 할 수 있으니 가르침을 계속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수행할 것이니, 함께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법문은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동시통역돼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한국어 달라이라마 채널에선 한때 400명 이상이 접속하여 법문을 시청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문중계를 시청했다.

日, 맨발로 불길 걷는 '히와타리 마츠리'

야쿠오인 사원, 매년 3월 봉행
코로나19 종식·세계평화 염원


일본 도쿄의 타카오산에서 열린 '히와타리 마츠리'의 참가자가 맨발로 불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출처=로이터 통신

일본 도쿄 타카오산 야쿠오인(藥王院)에서 봉행된 '히와타리 마츠리(火渡り祭)'의 독특한 기원 방식이 인터넷에서 화제다. '로이터 통신'은 3월 13일, 맨발로 불 위를 걸으며 기원하는 히와타리 마쓰리의 모습을 보도했다.

약 1200년 전에 개산된 진언종(真言宗) 사찰 야쿠오인 사원에서는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불길 위를 걷는 히와타리 마츠리를 봉행하고 있다. 50여 년 전부터 매년 끊임없이 행해온 이 기도회는 편백나무로 만든 기도목패를 불속에 던져 불보살을 공양하는 호마(護摩)의식 후, 남은 불씨 위를 맨발로 걸으며 한해의 무병무탈과 번영을 기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불교에서 호마기도를 한 불씨는 일반적인 불이 아닌 불보살이 머물렀던 성스러운 불로 여겨져 이 불길에 닿거나 그 열기를 쏘이면 가피를 입는다고 말한다.

야쿠오인 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작년의 히와타리 마츠리를 산중행사로만 봉행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올해는 1500명의 참배객들이 기도에 함께했다"고 전했다. 감염방지를 위해 일반 참가자들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등 평소보다 더 엄격하게 진행됐다. 야쿠오인의 가미무라 고쇼 스님은 "화염을 뚫고 지나가면 불보살의 가피로 마음이 맑아지고, 맑은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타카오산은 역병을 구제하는 기도로 개산한 도량인 만큼, 올해는 엄격한 예방책을 세우고 기도회를 봉행했다"고 전했다.

호마기도가 회향되고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을 나뭇가지와 삽 등으로 정리해 길을 만들고, 먼저 기도를 봉행한 스님들이 진언을 외우며 맨발로 불속을 걸어갔다. 스님들은 불길을 건너며 참가자들의 건강과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 세계평화 등을 기원했다.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 불길을 건넌 한 40대 여성 참가자는 "코로나19의 감염이 더 이상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폴란드 사찰, 우크라이나 전쟁 인한 네팔인 난민 도와

티베트 사원 BKKC 린첸 스님
언론사 도움받아 피난 중이던
네팔 노동자 23명에 숙식제공


벤첸 카르마 캄창 센터에 머물고 있는 네팔 피난민들. 사진출처=카트만두 포스트

폴란드에 있는 티베트 불교 사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네팔인 난민 43명을 도와 화제다. 네팔 영어 일간지 '카트만두 포스트'는 3월 18일 "폴란드 그라브닉에 위치한 벤첸 카르마 캄창 센터가 사찰을 네팔인 난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로 개방했다"고 보도했다.

벤첸 카르마 캄창 센터(BKKC)는 1995년에 설립했다. 네팔 카트만두에 본원을 둔 티베트 불교사원인 벤첸 사원의 폴란드 분원이다. BBKC의 주지 라마 린첸 스님은 "우크라이나 탈출 중 바르샤바 역에 발이 묶인 네팔인 일행을 기사를 보았다"면서 "소식을 접한 바로 다음 날 해당 언론사와 연락을 취해 바르샤바로 가서 네팔인 23명을 센터로 데려왔다"고 전했다. 린첸 스님은 폴란드 출신의 스님으로 1989년 처음 네팔을 방문하면서 티베트 출신의 고승 텡아 린포체의 문하에서 출가했다.

현재 BKKC에서 머물고 있는 네팔 피난민 파체타 셰르파는 "취업비자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그러나 정확히 한 달 뒤 전쟁이 발발했다"면서 "택시를 타고 폴란드 국경으로 향했으나 피란 행렬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2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어 폴란드 국경에 도착했다"고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겨우 입국한 폴란드에서도 갈 곳이 없었다. 폴란드의 네팔인 협회가 바르샤바까지 버스를 제공하긴 했지만 더 이상의 도움은 없었다. 셰르파는 "다행히 네팔과 인연이 있는 불교사원이 네팔인들을 수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올 수 있었다. 천운이었다"며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다.

또 다른 피난민인 시바 파리야르는 "이곳에 도착했을 때, 우크라이나를 떠난 이후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다"면서 "외국인들을 가족처럼 보살펴주는 사원의 신도들로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 이민국은 현재 네팔 피난민들에게 15일 이내에 폴란드를 떠나야 한다고 고지했다. 현재 BBKC는 네팔 난민들이 다음 행선지를 계획할 수 있도록 정보와 물류를 제공하고 있다. 린첸 스님은 "우리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에 도움이 주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센터가 네팔인들을 돕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쁘다"고 웃어 보였다. 네팔 피난민들을 돕는 기금은 폴란드 현지 불교신자들과 사원들의 보시로 마련됐다.

BBKC에 머문 네팔 피난민들은 "갑작스러운 전쟁에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곳에서 머물면서 우리는 다음 걸음을 나갈 수 있었다. 린첸 스님과 불교센터의 모든 분들이 우리 삶에 빛을 주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린첸 스님은 "BBKC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탈출하는 네팔인들에 열려있다. 만약 폴란드에서 안전한 장소를 원하는 네팔인은 언제든 연락달라"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中, 잘생긴 스님 보러 사찰 참배?

난징시 영곡사 학인 스님 화제
"불교도 젊다" 긍정적 평가도

중국 장쑤성(江蘇省) 난징(南京)에 소재한 천년고찰 영곡사(靈谷寺). 주변 산세와 아름다운 정원 등으로 유명한 이 사찰에 최근 '잘생긴 스님'이 화제가 되면서 연일 참배객들을 부르고 있다. 대만의 '핑과일보'는 3월 17일 화제의 주인공 스님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

6세기경 세워진 영곡사는 한때 1000명이 넘는 대중스님이 수행한 도량이다. 최근 이 사찰에서 정진 중인 한 스님의 외모가 입소문을 타면서 "잘생긴 스님 보러 영곡사 간다"며 화제가 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1996년생 치샨(持善) 스님으로 최근 베이징 중국불학원을 졸업하고 영곡사에서 정진하는 학인 스님이다. 스님은 최근 난징시 선전영상에서 영곡사를 대표해서 법당 앞에 핀 목련과 함께 등장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스님을 직접 보거나 스님 사진을 찍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사찰로 몰려들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스님은 "촬영이나 인터뷰에는 얼마든지 응할 테니, 사찰의 수행 분위기를 흐리지 말아 달라"면서 인파들의 요구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전문사진가들이 찍은 사진들이 SNS 등지에 더욱 공유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보기 위해 영곡사를 방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영곡사에는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사람. 이 세 가지 아름다움이 있다"며 한껏 스님을 추켜세웠다. 핑과일보는 "치샨 스님은 유명세를 타기 전부터 문학청년의 이미지를 가진 스님으로 SNS에서 팬들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영곡사의 꽃과 풍광과 함께 짧은 명상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현재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선 스님에 대해 "젊은 스님이 SNS로 유명세를 얻는 것은 우려되는 일"이라며 걱정하는 목소리와 함께 "불교에도 젊은 이미지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겠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봉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행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대한불교조계종
표 충 사
주지 진 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봉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행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대한불교조계종
함월산 백 양 사
주지 지은 산옹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백양로67(상안동)
전화 052-243-8712 팩스 052-243-1142
e-mail : hws1142@daum.net
백양사 전통사찰 조계종